

9월 고용·실업률 동반상승...광주 ‘은둔형 청년’ 줄었다

‘쉬었음’ 청년 해소 다양한 일자리 정책...비경제활동인구 감소
일자리 질은 다소 악화...전남은 취업자 수·고용률 등 모두 하락

광주지역의 9월 중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 등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9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76만 8000명)

대비 1만 9000명(2.5%) 증가했다. 고용률은 61.7%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올랐고, 실업률도 0.3%p 늘어난 2.7%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그동안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세는 뚜렷한 반면 구직활동의 가능자인 실업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

실업률 통계는 구직 활동을 하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오랜 구직활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지체 구직활동을 그만

두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구직 의사를 가지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광주시 비경제활동인구는 46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49만 1000명)보다 2만 6000명(5.2%) 감소했다.

이처럼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이유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등이 꼽힌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인구가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는 2022년부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사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연계해 구직활동을 중단한 지역 청년의 취업 및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의 일자리 질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지역 임금근로자는 4.1% 증가했는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명 늘어나는 동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만 1000명,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취업자 수, 고용률, 자영업자

수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전남 취업자 수는 9월 기준 10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3%) 감소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내린 66.2%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4%로 0.6%p 올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2만 9000명--13.3%)의 감소세가 지속됐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9000명--4.8%), 건설업(-3000명--4.2%) 등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중상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6000명 늘어나는 동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5000명, 2000명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9000명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충남 유부도 3년째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해양 쓰레기·교란 식물 제거

HS효성첨단소재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충남 서천군 유부도에서 3년째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HS효성에 따르면 지난 17일 HS효성첨단소재 임직원과 국립생태원, 서천군 생태관광협의체, 지역주민 등 50여명은 유부도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유부도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외래종 확산으로 토착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꾸준한 보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HS효성첨단소재는 번식력이 강한 교란 식물 종자와 새싹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광막 설치 작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홍수정 HS효성첨단소재 ESG경영팀장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다



HS효성첨단소재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충남 유부도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 제공)

양성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5월 국립생태원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생태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전주물꼬리풀 복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을 살리기 위해 울산과 서천에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식물 정원 등도 조성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광주 ‘챌린지 드림토크 콘서트’

각화중 학생 286명 대상

여행작가 김수영 초청 강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17일 각화중학교에서 ‘2025 기아 챌린지 드림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286명의 각화중 학생이 참석한 콘서트에서는 김수영 여행 작가가 ‘미친 꿈에 도전하라’는 주제로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작가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등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 세계 여행을 나섰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전했다.

콘서트는 김 작가의 강연과 함께 프랑스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노래하는 플루티스트 ‘나리’의 플루트 연주도 진행됐다.

기아 관계자는 “김 작가의 강연처럼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용기 있게 꿈에 도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아 챌린지 콘서트’는 ‘기아 챌린지 사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챌린지 문화예술 콘서트’와 초청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 비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토크 콘서트’로 구성됐다. 지역 9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강연과 공연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드림토크 콘서트는 국제제, 문성중, 각화중에서 총 3회 진행돼 1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문화예술콘서트는 지난 7월 월곡중에서 1회차 공연이 진행됐고 영전중, 문산중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수영(왼쪽) 여행 작가와 학생들이 지난 17일 각화중에서 열린 기아 챌린지 드림토크 콘서트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제공)

GICON,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장르특화 스킵업 교육 초청강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24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장르특화 스킵업 교육 대형 초청강연’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초청강연은 장르문학, 웹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 창작 노하우 및 기획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인 이낙준(별명 한산이가) 작가가 나선다. 이 작가는 현지 의사로서 인기 웹소설인 중증외상센터를 집필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실제 응급·중증외상 현장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기획했던 의도와 발상 과정,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참가자들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소정의 기념품 제공 및 작가 친필 사인본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의학 분야에서 느낄 수 있는 긴박함을 스토리로 재창조한 이낙준 작가의 경험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실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높아진 서민 금융 문턱에

차담보대출 2.5배로 급증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담보 대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은 총 24만8000건에 이른다.

영업일 기준 일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신청 건수인 2230건보다 150%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9000만원에서 84억90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헬스·필라테스·요가 환불 쉬워진다

공정위 독소조항 삭제 약관 시정

공정위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된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대화자 계약을 해서 방문판매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시 단 하루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법률상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금만 해야 하므로 삭제하도록 했다.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때는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봤다.

김해나 기자 khn@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웃도어 F/W 상품 특집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등산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아웃도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3일까지 4층 점행시장에서 ‘아웃도어 F/W 상품 특집전’을 진행한다. 코오롱스포츠, 아이더, 블랙야크 등 인기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브랜드별로 패딩, 등산바지, 덕다운코트 등 다양한 F/W 아웃도어 제품들을 30~70% 할인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날개돋친 금값에 ETF 한달 수익률 20% 넘어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답자”

게임, 금 관련 ETF 순매수 계속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균 수익률이 최근 한 달간 20%를 넘어섰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 관련 ETF로 분류되는 상품 7종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이 20.6%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ACE KRX 금현물’로 29.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간발의 차이로 ‘TIGER KRX금현물’가 28.9%로 그다음에 이었다. 그 밖에 ‘SOL 국제금’ (18.0%)과 ‘KODEX 금액티브’ (17.7%) 등도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다.

금 ETF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지만 게임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뜨겁다.

최근 한 주간(지난 13~17일)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ACE KRX금현물’ (1290억원)가 3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TIGER KRX금현물’ (5위·990억원), ‘KODEX 금액티브’ (6위·970억원) 등 10위권 내 금 관련 ETF 상품이 3개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2000달러 수준이었던 금 현물 가격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4318.75달러)를 또다시 새로 쓴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각국 중앙은행의 수요 증가,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를 비롯한 전 세계적 정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재정 상태 악화에 채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점도 안전자산 수요가 금으로 쏠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연일 기록 경신 중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은 한 번 상승하면 쉽사리 상승세가 꺼지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며 “현재 금의 상승세는 과열 국면이더라도 10~12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금 ETF로의 자금 유입, 중앙은행 매수세 지속 등으로 금 가격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금 가격이 온스당 48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9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3	15	24	33	37	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985,155,349		28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6,438,300		99
3	5개 숫자일치			844,799		5,442
4	4개 숫자일치			50,000		186,820
5	3개 숫자일치			5,000		2,884,544